
흙 놀이를 통한 유아자폐증치료과정 연구

Research of Education Program for Autistic Children the Clay

김성민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세라믹전공

Sung-Min Kim(min3812@hanmail.net)

요약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의 사회적 대상관계의 특징은 개인주의 팽배와 획일적 인간 관계속의 주체성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조상의 무관심속에 아동들은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에 빠져 지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어머니들의 과보호, 불규칙적인 양육태도, 정서적 외상 및 유전적 영향으로 인해 아동기 정신 발달 장애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서 미술치료에 대한 연구와 사례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으며 미술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연 매체인 점토를 통한 치료가 발달 장애(자폐아)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또한 점토치료가 이러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사회적 대상관계와 정화작용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생기는 시너지(Synergy Effect) 효과와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대해서 제시하려 한다.

■ 중심어 : | 미술치료 | 도예작업치료 |

Abstract

The structure of modern society are complex, fast, overflowing of individualism and losing of independence through the standardization of human relationship. The frequency increased that children watch television and play computer game alone through this structure. Also, the mental disorder like as autism tend to be increase for childhood because, parents overprotect, unmethodical bringing up children, emotional disturbance and effect of genetic. Therefore, research and case study of art therapy publish that illustrates a tendency of developing and growing. On the base of this situation art therapy realize more important than before and gain power. Therefore, this research consider that clay therapy effect for autistic just children and investigate function of catharsis through the case study. Also, make study that social rapport and function of catharsis develop for children who has autism. The suggest effect of synergy which come from clay therapy(education of ceramic) and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 keyword : | Clay Education Therapy | Education Program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 사회 구조상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부모들의 무관심속에 아동들은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에 빠져 지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어머니들의 과보호, 불규칙적인 양육태도, 정서적 외상 및 유전적 영향으로 인해 아동기 정신 발달 장애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기 발달 장애로 정신 분열증, 유아자폐증, 아동기 정신증, 불규칙한 아동증후군, 공생정신병, 백치, 백치성 유아, 전반적 발달장애등으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아동기 정신증과 유아자폐증은 가장 심한 유형의 행동 및 정서장애를 나타내며 아동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탐탁치 못한 장애로 여겨진다. 아동 자폐증은 신경학적 원인이 의심되나 충분히 밝혀지지 못한 가운데 출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폐성향 아동들은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상호 반응이나 유대감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과 감정교환이 어렵다. 또한 또래에 관심이 없어 친구관계 형성이 어렵고 사람과의 접촉을 많이 피한다. 심지어 부모와의 상호작용, 즉 엄마와의 애착행동에 있어서도 심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언어로는 면접이 곤란한 자폐성향 아동의 경우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며 소통의 길을 열수 있게끔 유도하는 특별한 치료 기법이 필요하다. 이는 자폐증의 가장 중심적 결함인 사회적 결함에 진전을 가져와 대인관계 형성과 언어 발달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미지 표출과정에 있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기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미술치료는 언어나 다른 전달 수단에 의한 의사소통이 비교적 자유롭지 못한 자폐성향 아동들에게 낙서나 그림 또는 여러 가지 미술매체를 접함으로써 자기 내면세계의 문제나 갈등, 느낌 등의 마음 상태를 자유롭게 표현하기에 적절한 것이다. 특히 다른 예술 치료에 비하여 미술 치료 활동은 그 재료 즉 매체가 매우 다양하여 그 매체의 선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억압된 감정이나 표현들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

여 치료해야 그 효과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 치료 매체의 하나인 점토를 사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평면 활동과 입체 활동을 함으로써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교육 치료가 주는 치료적 관점 및 효과와 방법들을 살펴보고 이를 임상 실험해 봄으로써 발달 장애아들의 사회적 대상관계와 정화 작용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점토치료(도예교육)로 인한 시너지(Synergy)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수립하려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2.1 연구방법

본 연구방법으로는 유아자폐증의 특성을 연구한 후 참고문헌을 통해 전반적인 미술치료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미술치료에서의 점토의 활용, 미술치료 실습 및 연구논문을 참고하여 자폐아에게 직접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치료 이를 바탕으로 생기는 시너지(Synergy Effect) 효과와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대해서 제시하려한다.

2.2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신증에 관한 논의를 유아자폐증에 국한시키고자 하여, 유아자폐증의 복잡성에 대해 좀더 면밀히 살펴보고 미술치료를 통한 결과 보다는 치료과정을 중점으로 둔다. 미술 교육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고 재미있게 감정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자폐아들의 특성을 연구하여 그림을 그리고 흙 놀이를 통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문제점을 표출하고 이에 맞는 대화로서 치유하는 과정이다. 미술치료에서 흙 놀이는 아이들이 가장 쉽게 친해질 수 점토를 사용하여 촉각과 소근육을 발전시키고 부드러운 물질로서 여러 모양으로 감정을 나타낼 수 있음을 연구한다. 자폐아의 특성상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기피하고 고집이 세고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미술활동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점토의 끈적임을 싫어하고 촉각이 예민한 자폐아들에게는 흙 놀이 치료가 조심스럽다.

II. 이론적 배경

1. 유아자폐증

유아 장애 중 자폐증은 어떤 장애보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정상적인 경험의 범위를 벗어난 장애조건이다. 흔히 이상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전혀 하지 않고 발끝으로 조용조용히 걸으며, 주변에 있는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지각인지 발달 면에서 심한 고립현상을 보이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물체를 부적절하게 또 늘 같은 유형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음악에 몰입하며, 발끝으로 걷기, 몸 흔들기, 이상한 자세 취하기 등과 같은 이상운동 패턴을 보인다. 이런 아동들은 회전하는 물건에 아주 매혹된다. 그들은 장난감 자동차를 뒤집어 놓고 몇 시간씩 앉아 있고, 끝없이 바퀴를 굴린다. 다른 아동들과는 달리, 이런 한 행동으로부터 주의를 집중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들은 쉽게 좌절하고, 심하게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지른다. 이러한 소리 지르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기 때문에 부모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차레를 지키지 못하고 대상을 상정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정서적인 발달 면에서도 사람에 대해 정상적인 애착을 갖지 못한다. 유아기부터 다른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며 다른 아동들에 비해 얼굴 표정이 부족하다. 이런 아동들은 신체적 접촉에 무관심하거나 매우 싫어하기까지 한다. 흔히 자신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부모와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여긴다. 그들은 추상적 사고, 상징성 및 단계적 논리를 요하는 과제 수행이 매우 열등하다. 그러나 시각적 공간적인 기술을 요하는 과제는 매우 잘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유아 자폐증은 특성이 너무 이상하여 다른 아동기 장애보다 더 관심을 받고 있다.

표 1. 유아자폐증의 특성

유아자폐증의 특성
·아동들은 관계 형성 능력의 결함을 보인다.
·일반적인 강화체계가 부적절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의사소통 기술의 손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감각이상으로 인하여 감각 자극에 이상 반응
·주의집중이 차이를 보인다
·자폐증 아동들은 동일성을 요구
·비정상적인 운동 활동을 한다.
·흔히 발달장애, 정신지체 및 신경학적 결함 수반

자폐증은 발달장애, 언어 및 의사소통 이상, 이차적인 행동 및 정서문제들을 지니는 증후군으로 기술 할 수 있다. 자폐증의 특성은 다른 아동기 장애처럼 아주 다양하고 장애 정도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교적 정상적인 발달 기간을 거쳐 자아발달이 쇠퇴하는 전반적 정신증장애로서 어느 정도 언어구사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성한다. 정신분열증 아동들의 성격, 임상적 과정, 지적 기능 및 원인 또한 매우 다양하다. 자폐증 아동들의 출현율 수치는 학령기 아동 10,000명당 0.7명정도 제시되고 있다. 1977년 캐나다 자폐아동 연구회의 연구에서는 신생아 10,000명당 5명의 비율로 자폐증아동이 출현한다고 하였다. 심인성 가설 원인으로써 부모가 자기자녀를 적절히 돌보지 못하는 양육태도가 유아자폐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생각했다. 적절하기 못한 적대 세계에서 회피하기 위하여 고립된 세계로 들어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Bruno Bettelheim는 자폐적 행동을 적대적이고 거부적 이라고 생각되는 세계에 대하여 나타내는 반응이라고 해석했다. 그런 아동들은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상상의 세계로 후퇴해 버리고 동일성을 고집스럽게 추구함으로써 어떤 질서나 항상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유아자폐증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고, 발달적·환경적요인 및 전적 손상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유전적 요인이 또한 그 빛을 상실해 가고 있다. 허약한 X염체를 지닌 남성들이 69%가 자폐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illerg(1980)은 소집단 표집 연구에서 산모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자폐성 아동을 가질 위험성이 9배 높다고 발견했다.

유아 자폐증 예후로 정신분열증 아동들은 장애의 발생연령, 장애검진, 진행과정 및 중재의 강도 등에 따라 다소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자폐증 아동들의 전망을 그다지 밝지는 못하지만 가까이서 강도에 따라 감독하고 보호해 주어야 정신지체의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 교육적 예후는 그들이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는 정도에 따라 향상된다. 아동들은 우선 의사소통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행동을 학습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훈

런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습을 성공적으로 받은 자폐증 아동들도 사회적 관계 능력이 열등하고 사회적 자신감이 매우 낮다.

6명중 1명은 성인이 되어 일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한 사회적 적응이 가능하다. 최근까지는 부모의 정의적 행동을 아동기 정신증과 자폐증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았다. 자녀가 자폐증이 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관념을 버리고 여러 원인을 발표했다. 그러므로 여러 연구자들은 치료방법 및 훈련을 연구하였다. 자폐아 아동들과 그 부모들은 적절한 교육, 레크리에이션, 부모훈련을 포함하여 일찍부터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자폐증 아동들을 위한 대부분의 훈련 프로그램은 치료적이고, 일대일 관계 및 부모가 아동의 치료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1차 치료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장 적절한 사람이다. 치료에 치료사와 부모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각 아동의 개별 치료가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 부모는 아동의 주 치료자로서 아동의 복지와 진보에 가장 관심을 지니고 있다.

2. 미술치료의 중요성

우리 자신의 기억, 갈등, 문제점, 아픔, 동경, 희망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린 그림에 표현되어 그것들과 대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빈번히 경험한다. 그림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불안과 고통, 두려움을 전하는 상징적 메시지이며, 미술치료는 이러한 상징적 메시지를 풀어가는 여행이다. 그림이 개인을 변화시키는 힘은 실로 놀라운 현상이다. “그림으로 과연 정신적 치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미술치료에 참가한 한 여성이 “나는 그림이 이러한 마력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림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때론 힘들지만 나의 내면과 마주칠 용기를 얻게 되어 기뻐요” 하고 말할 때 모든 참가자들이 동감했었다고 한다. 미술 치료는 개인의 성장과 통찰, 변화를 위해 미술의 비언어적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며, 생각, 감정, 지각 같은 우리의 내면세계를 외부의 현실세계 및 인생경험과 연결시키는 수단이

다. 이는 자기표현을 이미지로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드로잉, 페인팅, 조각 같은 시각예술은 인류의 집단적 역사와 생각, 감정 꿈, 염원들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강력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양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술 활동이 위안을 주고 스트레스를 감소하며, 삶의 문제나 힘겨운 생활들을 초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미술가나 우리 자신 또한 스스로 이미 미술을 치료양식으로 활용하여, 이완과 만족, 자기표현을 위하여 그리거나 칠하고 조각하거나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술치료는 경험들을 통해 미술이 나이와 능력에 상관없이 자기표현의 효과적이고 효력 있는 수단이 되며, 모든 사람이 미술의 개선과 복구 능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치료로서의 미술 작품 제작이 건강과 회복, 온전한 삶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스트레스나 문제점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술로서 다가가면 효과적이다. 어린아이들은 공부는 스트레스로 생각될 수 있지만 미술을 놀이로써 능동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힘과 직관력을 자극하여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고 자아를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 미술치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행해진다. 미술치료의 유용성은 소아, 성인, 노인, 청소년뿐 아니라, 약물중독자, 중증 말기환자, 참전 퇴역군인, 장애인, 어려움이 있는 가족, 죄수 그리고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미술+치료=? 라는 공식은 미술치료가 미술과 치료가 결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미술치료는 기본적으로 미술과 심리학 두 가지 분야의 결합이다. 미술치료의 효과요인으로 첫째 그림을 그리는 형상화 과정 자체에서, 둘째 상상 과정 및 상징화 과정에서, 셋째 대화과정과 해석 과정에서, 넷째 그림을 그리면서 또한 그림을 그린 후의 대화를 통해서 치료사와 환자 혹은 집단원과 한자리에 이루어지는 만남과 관계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 미술 치료사들이 미술 치료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두 가지 범주에 속

한다.

첫째, 미술이 상징적인 의사소통 도구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흔히 미술 심리치료라고 하며, 작품 - 회화뿐 아니라 미술표현 전체- 이 갈등이나 감정, 주제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심리치료는 이러한 접근법을 기본을 하므로 그림의 이미지는 직관력을 갖고 내담자와 치료자간의 언어적 소통능력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치료적 도움과 지지를 바탕으로 미술을 새로운 이해와 직관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긍정적 변화, 성장 치료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술활동의 창작 과정에서 내재하는 치유력에 대한 믿음이다. 즉, 치유미술을 말한다. 치유미술에서는 완성된 그림을 통한 심리적 분석보다는 그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하여 환자의 아픔, 절망, 분노 두려움의 등의 감정이 정화되는 경험을 더욱 중요시 여긴다는 점이다. 미술 활동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진실하고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이며, 개인적인 변화와 감정적 보상, 성취감으로 이끌어가는 경험이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창조적인 작업과정은 그 자체의 제작 경험이 성장과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 실제로 대부분의 미술 치료사들은 자신들의 활동 속에 치료로서의 미술과 미술 심리치료의 두 가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미술활동이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입장과 미술작품이 치료에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는 두 가지 개념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다.

치료자들은 미술치료를 할 때 그들 자신의 철학과 개인적인 요구와 목표에 따라 어떤 하나의 입장이 더 강조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술+치료 = 치유적인 표현을 통해 일상적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개인적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다.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직관력을 갖게 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바로 미술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술 표현은 이미지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생각한다. 한사람의 이미지 속에서 개인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미술치료 과정 중 한 부분

이다.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미술표현의 잠재적 치료 가치의 하나이다. 이는 치료로서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뛰어난 방법이 된다.

3. 미술치료에서의 감각교육

미술 교육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사물의 특징을 탐색하고 지각해서 감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각적인 활동이다. 정서를 보다 풍부하게 해 주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길러 주어서 조화로운 인격형성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오감을 통해 지각한 것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은 미술치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프리벨이 놀이를 성장 시 최고의 표현이며 동시에 모든 단계의 인간 성장 반영이라고 지적한 이후 놀이는 생활인 동시에 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런 놀이를 미술에 도입한 조형놀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의의를 가진다.

첫째, 주변의 사물과 현상을 관찰 파악하면서 지각 기능을 발달한다.

둘째, 재료와의 접촉에 의해 손 기능이 발달한다.

셋째, 탐사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통해 탐구력, 창의력이 발달한다.

넷째, 새로운 사물을 접하여 탐색해 봄으로써 지각 기능이 발달한다.

다섯째,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탐색하는 등의 인지 활동 속에서 주의집중력이 발전한다.

여섯째, 자신의 내면적인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어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력이 발달한다.

일곱째, 막연한 느낌이나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을 때의 성취감으로 긍정적 지각이 형성된다.

여덟째,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과정을 통해 미적 정서가 발달되고 미적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아홉째, 그리거나 만드는 일련의 조형 놀이를 통해 예술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열째, 조형놀이를 위해 교과의 재구성이 필요하므로 교사의 재량권을 넓히고 방임지도를 방지 할 수 있다. 조형놀이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놀이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표현활동을 창조적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며 도와준다. 만들기와 흙 놀이가 중요한 교육적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감각 경험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미적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4. 감각교육에서의 점토활용

점토는 언어가 결핍된 장애아에게 유용한 매체로 활용된다. 점토는 입체적인 표현을 하기 쉬워 자유자재로 각자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사물의 형체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만들기 쉽고 마음대로 되는 점토의 성질은 생명과 몸체를 소유하는 매개체를 낳게 하는데, 점토를 힘껏 쥐고, 굴리고, 형태를 만들려는 충동에 의해 점토는 인간의식의 깊이를 끌어내게 된다. 또한 점토를 통한 미술치료과정은 치료적이고 창조적인 필요에 의존하는 아동의 촉각과

시각 기능 모두를 끌어내게 한다. Lowenfeld(1957)는 생애 초기동안의 피부 접촉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점토의 모형 만들기 활동은 자기자각, 자기인상, 자아개념을 발전시키며, 자아와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설명하였다. 즉, 점토를 통한 촉각 활동으로써 심리적 의미 창조를 위한 경험적 자아가 발달되어 결국 기본적 감각 체계가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공간개념이 발달하게 되고 이에 현실 검증이 가능하게 된다. 점토에 의한 활동은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이 되는 초기의 내면화된 관계를 새롭게 내다보게 하며, 미술 치료 관계에서 안전한 틀을 제공하여 그 안에서 대상의 세계를 연구하고 경험하게 한다. 또한 자아 긍정감이 증진되며 새롭게 자신을 보게 되어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는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보게 되며, 이때 치료자는 깊은 이해와 감정이입, 해석을 통해 초기 상실과 문제를 보상하는데 도움을 준다. 점토는 물을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는 도예작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도예는 흙과, 불 그리고 기타 물질 등을 주로 사용한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의 재료를 사용한다.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재료가 주로 활용되는 도예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속 발전되어온 인간과

가장 친근한 예술의 형태이다. 점토의 부드러운 감촉은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누구나 호감을 주는 재료이다. 그리고 도자기를 구어 내는 소성과정 또한 매우 흥미롭다. 불을 보는 순간 모두가 흥분하다. 그리고 구워지는 동안 많은 기대감을 유발한다. 이러한 작업까지 활용한다면 매우 좋은 치료효과를 가져온다.

III.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적용

1. 미술치료의 적용

• 1-2주차 지도안

주제: 점토와 친해지기

목표: 점토를 주무르고, 누르고, 치고 하면서 매체를 탐색 후 매체에 대한 저항감을 없애주며 게임을 통한 치료자와의 관계를 형성한다.

활동내용: 점토를 나누어 주어 누르고, 치고, 굴리고 등의 활동을 한 후 다트를 만들어 아동과 치료자가 함께 게임을 한다.

유의점: 아동들이 자유롭게 점토를 가지고 놀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떤 제지도 하지 않는다. 또한 치료자는 아이들 개개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은 하되 분석하지 않는다.

• 3주차 지도안

주제: 크리스마스 주제의 그림에 따라 점토 붙이기.

목표: 밀그림이 그려진 도화지 위에 그림에 따라 점토를 뜯어 붙여서 장식한다. 이로써 그림의 평면적 활동에 입각해 점토 교육도 평면으로 표현 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활동내용: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날의 의미를 알려 주면서 그림위에 아동들이 원하는 형태로 따라서 점토로 장식하게 한다.

유의점: 아동들에게 시범만 보이고 관여는 안한다.

• 4-6주차 지도안

주제: 점토 말기(코일링)로 평면작업 활동

목표: 코일의 길이의 변화를 주어 익숙한 자연 사물

과 도형을 표현하여 사물에 대한 반복 학습을 시키며 인식에 대한 확장을 꾀한다.

활동내용: 코일 길이의 변화를 주어 바닥에 나무를 표현해보자라고 하고 치료자가 먼저 시험을 보인다.

유의점: 반복하여 애기해주고 시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공동 교육을 할 때에는 서로에게 칭찬과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7-9주차 지도안

주제: 구와 선을 이용한 입체 만들기

목표: 구와 선을 인식시키며 구와 선의 기본 형태를 가지고 평면성과 입체성을 인식시킨다. 이때 다른 매체를 사용하여 점토를 연결시킨다.

활동내용: 아동들에게 콩알 만들기과 뼈빠로 만들기를 시킨 후 익숙한 매체인 이쑤시개로 작은 개체를 연결시킨다. 기차를 만들자고 선으로 연결을 시킨 후 입체로 발전시킨다.

유의점: 다른 매체에 대한 저항이 있는 아동도 있었으나 치료자의 시범을 보고 금방 따라 했다. 이리하듯이 간혹 아동이 다른 매체에 저항이 생기면 같이 손을 잡고 매체와의 접근을 유도한 후 시작한다.

• 10-13주차 지도안

주제: 코일링으로 다양한 선과 입체의 표현

목표: 코일링을 세우고 높히고 구부리고 붙여서 점토의 유연성, 가소성과 부착이 용이함을 인식하며 선과 공간의 개념을 인식시키며 공동 교육 활동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창조로 자신감을 가지게 해준다.

활동내용: 코일을 만든 후 세워서 일렬로 나열은 한다. 이는 선 사이로 오는 공간의 개념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다른 매체인 꽃을 사용하여 아이들의 환성을 얻어냈다.

유의점: 코일을 여러 번 반복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아동에게는 직접 가서 손을 잡고 같이 하면서 반복 학습을 시켜준다. 또한 부착 시킬 때 아동이 한 덩어리로 하지 않게끔 유도하며 공동 활동을 할 때도 차례를 지키면서 하도록 유도한다.

• 14-16주차 지도안

주제: 덩어리 표현과 다른 매체와의 결합

목표: 덩어리감을 일깨워주고 점토와 다른 매체와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 또한 장식의 의미를 알게 해준다.

활동내용: 앞 차수에서 점토와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덩어리 작업을 유도한다. 이 차수부터는 치료자의 개입을 줄이며 주제를 주어서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유의점: 아동들이 표현하려는 최대한의 것들에 귀담아 듣고 동조해준다.

• 17-18주차 지도안

주제: 공동으로 기차 길과 도로를 만들기

목표: 공동 작업으로 인한 사회성의 개선 및 전 차수에 했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인식의 폭을 확대시킨다.

활동내용: 개개인인 코일을 만든 후 치료자가 선발로 길을 만들어 가니 아동들도 따라서 만들기 시작하였다. 어떤 아동을 중간에 세우기도 하여 기차 길 만들기를 유도하였다.

유의점: 치료자가 계속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닌 치료자가 선행해서 행동을 보이면서 아이들의 활동을 유도한다.

• 19주차 지도안

주제: 대상들에 대한 표현

목표: 앞 차수에 한 모든 방법을 바탕으로 대상들에 대한 표현을 함으로써 아동들의 대상 인식 능력과 표현력 향상을 증진시킨다.

활동내용: 꽃을 주제로 하여 타일과 성을 만들게 함에 있어서 단계마다 설명을 하여 표현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전 과정에서는 소성이라는 개념을 부각시키지 않았으나 이 과정에서는 소성과 색칠을 하게 하여 소성과정에 아동들을 합류시킴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였다.

유의점: 지나친 제시보다는 경험을 떠올릴 수 있게끔 유도하는 대화법을 사용하며 결과물에 관한 자부심이 아동으로부터 일어나게끔 유도한다.

IV. 결론

자폐증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는 자폐증을 완전히 없애고 정상화를 가져오는 특효약이나 수술, 의학적인 특수 치료는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자폐증에 대한 치료의 의미는 자폐증들이 가진 여러 가지 핸디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의 정상화, 사회적응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에 근본적인 의미를 두어야 한다. 짧은 회수의 치료 교육 기간에 많은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횡수가 거듭될수록 아동들의 발전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임상실험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점토교육치료(도예교육)는 자폐아에게 촉각적인 감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모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유도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폐아동 누구나가 수업 횡수가 지남에 따라 모방을 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지속적인이며 아동의 인식, 장애정도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킨다면 모방에서 조금 벗어나 창의적 결과물을 가져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점토교육치료(도예교육) 프로그램을 자폐아에게 적용시켜 지도해본 결과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산만했던 아동이 주의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단계가 지나면 치료자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집중을 하며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3. 교육 중 아동의 돌발적인 행동이나 언어를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 반응하였다. 이는 발달 장애아동들도 사회적 관계를 원초적이거나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점토교육치료(도예교육)를 통하여 자폐아는 타인과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기회를 가지며 나아가 긍정적인 대인관계 및 사회적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5. 본 인이 실시한 프로그램은 정상아동들에게 실행되어지고 있는 도예 교육의 결과 중심적 교육이 아닌 하는 행위 자체의 과정을 중요시 하는 교육으로 소성 과정보다는 점토 자체의 물성적인 성질

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에 주안을 두고 실행하였다. 그러나 결과와 행위 자체인 과정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아동들에게 행위자체의 즐거움, 해소와 더불어서 결과물에 대한 원초적인 자신감을 일깨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예를 전공한 전문가의 교육과 좀 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참 고 문 헌

- [1] 권기덕, 김동연, 최외선, 가족미술 치료, 동아문화사, 1997.
- [2] 다니엘 로두, 도예가를 위한 점토와 유약, 한양대학교출판부, 1999.
- [3] 도널드 위니콧, 이재훈, 역그림 놀이를 통한 어린이 심리치료, 한국심리 치료 연구소, 1998.
- [4] 예술 경영 연구 2001 제1집, 한국예술경영학회, 미술교육 연구 논총 제 13집 1,2호 마음을 치유하는 작업 도예가 임하나 Crart, 2004.
- [5] 로웬펠트,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2002.

저 자 소 개

김 성 민(Sung-Min Kim)

정회원



- 1998년 2월 :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산업공예학과전공 (산업도자 석사)
- 한국도자장신구협회 회원
- 한국공예학회 회원
- 한국디자인학회 회원

▪ 현재 : 공주대학교 교수(세라믹디자인전공)

<관심분야> : 문화콘텐츠 개발, 공예문화 마케팅